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6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생활 함으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여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표현함

성경: 시 16:7, 아 5:14 하, 빌 1:8, 몬 7, 20, 골 3:12, 딤후 3:4

- I.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심장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체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하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의 그분의 체험들이다—눅 2:49, 요 2:17, 마 26:39, 사 53:11-12, 42:4, 막 2:8.
 - A. 화목제의 내장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속 존재가 부드럽고 작고 귀하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레 3:3.
 - B. 그리스도의 심장은 밤마다 그분에게 교훈을 주었다—시 16:7 하, 사 50:4.
 1.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권고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리스도께 교훈을 주었다—시 16:7.
 2.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합당한 체험이다—빌 1:8.
 - C.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 5:14 하). 그리스도의 심장(몸-복부)는 분명하며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그분의 고난들(상아)을 통해 일해 넣어진 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득하다 (남보석, 비교 출 24:10).
 - D. 유월절 양을 그 내장과 함께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출 12:9, 빌 1:8.
- II.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분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빌 1:8, 2:5, 고전 2:16 하, 롬 8:6.
 - A.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심장, 곧 그분의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에 있어서까지 하나였다—빌 1:8.
 - B.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심장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 취했다—엡 3:17.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다.
 2.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배열되고 개조되었다.
 3.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재조성되었다—골 3:12.
 - C.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신실함, 즉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고후 11:10.
 - D.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고전 16:24.

- III.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머무는 것을 요구한다—빌 1:21 상, 8.
- A.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체험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그분과 하나였다—빌 1:8.
 - B.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생활을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생활을 살았다.
 - C.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심장 안에, 즉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요 15:4 상.
 - D.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심장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의 심장 안에서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빌 1:7, 4:23.
- IV.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사는 교회 생활의 그림을 갖는다—몬 7, 12, 20, 비교 계 2:23
- A. 심장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을 상징한다—빌 1:8, 2:1, 골 3:12.
 - B.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동정은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까지 이르렀다—몬 12.
- V. 바울은 교회를 돌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자신의 심장으로 취했다—빌 1:8.
- A.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돌봤다.
 - B.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느낌은 몸을 위한 바울의 느낌이 되었다.
 - C. 바울처럼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빌 1:8.
- VI. 교회 생활, 곧 몸의 생활과 새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자비와 인자라는 내적 존재를 입을 필요가 있다—골 3:10-12.
- A.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서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함께 있는 것이다—눅 6:36.
 - 1. 자비는 긍휼보다 더 깊고 섬세하며 풍성하다—눅 10:33-34.
 - 2. ‘자비’라는 단어는 가련한 상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단어이다—시 103:8, 약 5:11, 고후 1:3.
 - B. 인자는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딤후 3:4, 엡 2:7.
 - 1.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임을 묘사한다—삼하 9:1-13.
 - 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엡 4:32), “사랑은 친절하고”(고전 13:4).